

광주·전남 지역민 세금 부담 커지나

땅·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예정 공시가격 열람·이의 신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기도 지난해보다 큰 폭 올라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시기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땅·단독주택 공시가격 ↑= 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소유주를 상대로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200여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0여만호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가 열람중인 표준지에 대한 '2019 예정가격'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광주지역 땅값 1위를 기록한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맞은편 'LGU+' (152.1㎡)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당 1220만원으로 올랐다. 전년도(㎡당 1150만원)에 견줘 70만원(㎡당) 상승한 것이지만 지난 2017년(㎡당 1120만원)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충장로 2가 부지(186.8㎡)도 ㎡당 980만원 수준으로 전년도(㎡당 910만원)보다 뛰었고 충장로 3가 땅(115㎡)도 ㎡당 30만원(㎡당 830만원→860만원) 상승했다.

전남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가장 비쌌던 연향동 땅(330.4㎡)의 올해 예정가격은 ㎡당 380만원으로 전년도(㎡당 376만원)보다 올랐다. 다만, 순천시 남래동 땅(186㎡)은 ㎡당 335만원으로 지난해(㎡당 359만원)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억9000만원을 기록, 광주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기록

됐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다가구주택(연면적 860.2㎡)도 예정가격이 올랐고 윤립동 다가구주택의 예정가격도 지난해보다 뛰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표준지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열람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기도 뛰어=올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기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광주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상승률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만큼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이 고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도보다 평균 5.22% 상승했다. 전국 평균(7.52%)보다 낮지만 7대 특광역시에서는 서울(9.36%)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 오피스텔의 최근 3년 간 기준시가 상승률은 3.38%(2017년)→2.41%(2018년)→5.22%(2019년)로 뛰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광주에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지웰에스테이트 B동 오피스텔로 지난해(159만6000원)보다 오른 166만5000원이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기도 광주는 5.44% 뛰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8.51%), 대구(8.40%), 인천(6.98%)

다음으로 상승률이 컸다. 광주 상업용 건물 1위는 동구 호남동 충장로이스토리(442만9000원)로 지난해(461만5000원)보다 떨어졌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복합용 건물 중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더플레이스봉선(183만8000원)이 광주에서 가장 비쌌다. 이 건물의 지난해 단위면적당 가격은 180만5000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0.00 (-31.04) ↓ 금리(국고채 3년) 1.80 (-0.02)
↓ 코스닥 669.37 (-6.28) ↑ 환율(USD) 1119.00 (+3.30)

보해양조 탄산주 '크렁크바' 中 시장 진출

노래방 체인점 입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YG와 손잡고 만든 탄산주 '크렁크바' 2종(피스타치 소다, 캔디밤)이 중국 가짜형 노래방 체인인 'HaoLeDi(好迪,하올리디)'에 입점했다. 2019년 신년을 맞아 보해와 YG가 만든 크렁크바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해는 물론 국내 주류시장 전반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와 YG가 함께 만든 크렁크바가 최근 중국 노래방 체인 하올리디에 입점했다. 하올리디는 중국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족형 노래방 체인으로 한 점포당 300여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상해를 비롯해 중국 전역에 빠르게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보해가 만든 크렁크바가 이곳에 진출하면서 중국 내 매출이 증가할 것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출시된 크렁크바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먼저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베트남으로 1만 개가 수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유명해지면서 크렁크바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크렁크바가 인기를 얻은 것은 피스타치 소다와 캔디밤 등 20~30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탄산주라는 요인과 함께 YG 대표 캐릭터인 '크렁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YG 소속 가수 이하이



의 'It's Over' 뮤직비디오에서 처음 등장한 크렁크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지난 2017년 9월에는 '아이 캔트 베어'(I can't bear) 음원과 뮤직비디오까지 발표했다.

보해양조와 YG는 현지 무역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하올리디 입점 등 2019년 초까지 10만 개 수출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보해는 하올리디에 입점해서 중국 젊은층에게 인지도를 높이면 해외시장에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해는 지난 8월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플랫폼 'T-mall(티몰)'에 한국 주류회사 최초로 입점했다. 이에 따라 티몰에서는 보해양조가 만든 잎새주와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10개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폭스바겐', '노스페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김흥선 광주본부장 취임



김흥선 본부장



김양호 연수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김흥선 신임 본부장이 2일 취임했다.

고흥 출신인 김 신임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투자사업처, 호남연수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전남동부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및 현장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중진공 호남연수원장으로는 김양호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광주 출신인 김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입사해 본사,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연수원, 정년창업사관학교 등을 거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은 2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더 높이 비상하자”

송중욱 광주은행장 시무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뜻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화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에 처해있지만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더 높이 비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를 New Bank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해 고

객 편의를 우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중욱 은행장은 광주은행이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영업기반 고도화 ▲수도권지역 특화영업 추진 ▲디지털 영업 강화라는 3대 영업전략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질적성장을 강조했으며, 실현방향으로는 미래성장 기반구축, 경영효율성 제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지역과의 상생을 제시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현대·기아차 올 신차 13종 출시

세계 시장 760만대 판매 목표

현대·기아차가 올해 세계 시장에서 760만대를 판매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또 올해 13종의 신차를 출시, 판매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각각 468만대, 292만대 등 모두 76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차는 국내 판매 목표를 71만2000대로 잡았고 해외 판매량을 396만8000대로 확정했다. 기아차는 내수 53만대, 해외판매 239만대를 목표로 확정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판매량은 458만

6775대로, 국내에서 72만1078대를 팔았고 해외에서 386만5697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감안하면 9만3000대 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아차의 올 목표도 지난해 연간 판매량(281만 2200대)에 견줘 10만7000여대를 늘려잡은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내수(53만1700대), 해외 판매(228만500대) 등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쏘나타와 SUV 등 6종, 제네시스는 G80, GV80 등 2종, 기아차는 광우공장의 쏘울 부스터와 소형 SUV를 비롯, 텔룰라이드-K5 등 5종의 신차를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대한민국 최우수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콘도넛,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